2027학년도 수능 대비 『이매진』

"교재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호	쪽수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최종 수정일
1호	206쪽	독서 배경지식	존재: 존재자들이 존재자로서 드러나게 하는 근거, 존재의 드러남.	존재: 존재자들이 존재자로서 드러나게 하는 근거, 존재자의 드러남.	2026. 3. 31.
1호	80쪽	지문 2문단 두 번째 문장	프라이머는 달라붙은 위치에서 5'말단 쪽으로 이동하며, 그 뒤를 유전자 중합 효소가 따라가면서 유전자를 복제한다. 이때 프라이머가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헬리케이스라는 효소가 두 유전자 가닥의 결합을 ⓐ 풀어 나간다. 그런데 두 유전자 가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림〉의 a와 같이 한 가닥에서는 프라이머가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지만, 반대 가닥에서는 b와 같이 프라이머가 떨어졌다가 다시 붙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프라이머가 달라붙으면, 이를 인식한 유전자 중합 효소가 프라이머의 위치에서부터 5'말단 쪽으로 이동하며 유전자를 복제한다. 이때 중합 효소가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헬리케이스라는 효소가 두 유전자 가닥의 결합을 ⓐ 풀어 나간다. 그런데 두 유전자 가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림〉의 a와 같이 한 가닥에서는 중합 효소가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지만, 반대 가닥에서는 중합 효소가 계속해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복제의 시작점이 되는 새로운 프라이머가 b와 같이 지속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2026. 4. 2.
1호	81쪽	3번 문항 1번 선지	① 지연 가닥에 붙은 프라이머는 5'말단 방향으로 이동한다.	① 지연 가닥에 붙은 유전자 중합 효소는 5'말단 방향으로 이동한다.	2026. 4. 2.
1호	81쪽	3번 문항 4번 선지	④ 프라이머와 유전자 중합 효소는 헬리케이스가 이미 지나간 유전자 가닥만을 지날 수 있다.	④ 유전자 중합 효소는 헬리케이스가 이미 지나간 유전자 가닥만을 지날 수 있다.	2026. 4. 2.
1호	168쪽	3번 문항 1번 해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지연 가닥에 붙은 프라이머 또한 선도 가닥에 붙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5'말단 방향으로 이동한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유전자 중합 효소는 프라이머의 위치에서부터 5'말단 쪽으로 이동하며 유전자를 복제한다. 두 유전자 가닥이 반대 방향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지연 가닥에서는 유전자 중합 효소가 연속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새로운 프라이머가 지속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지만, 중합 효소가 유전자를 복제하며 이동하는 기본 방향 자체는 선도 가닥과 마찬가지로 5'말단 쪽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지연 가닥에 붙은 유전자 중합 효소가 5'말단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026. 4. 2.
1호	169쪽	3번 문항 4번 해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유전자 중합 효소는 프라이머를 따라 이동한다. 이를 통해 유전자 중합 효소는 프라이머가 이미 지난 유전자 가닥만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프라이머의 경우, 결합이 풀린 유전자 가닥만을 지날 수 있다. 유전자 가닥의 결합은 헬리케이스에 의해 풀리므로, 프라이머와 유전자 중합 효소 모두 헬리케이스가 이미 지나간 유전자 가닥만을 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유전자 중합 효소가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헬리케이스라는 효소가 두 유전자 가닥의 결합을 풀어 나간다. 이는 유전자 중합 효소가 유전자를 복제하며 이동하기 위해서는 헬리케이스가 먼저 유전자 가닥의 결합을 풀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전자 중합 효소는 헬리케이스가 이미 결합을 풀고 지나간 유전자 가닥 구간만을 지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026. 4. 2.

<table>
<tr><th>호</th><th>쪽수</th><th>위치</th><th>수정 전</th><th>수정 후</th><th>최종 수정일</th></tr>
<tr><td>1호</td><td>150쪽</td><td>1번 문항
1번 해설</td><td>(가)는 ‘옛사람을 그리는고’, ‘신선님네 만나시는가’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한편 (나)는 ‘임자 어찌 없었던가’, ‘다툴 이 있을쏘냐’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td><td>(가)는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고'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옛사람'과 같은 인품을 지닌 사람을 찾기 어려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나)는 ‘임자 어찌 없었던가’, ‘다툴 이 있을쏘냐’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지 않았다.</td><td>2026. 4. 6.</td></tr>
<tr><td>2호</td><td>49쪽</td><td>3번 문항
1번 선지</td><td>① (0, 0, 255)의 색을 액정 디스플레이로 표현할 경우, 적색 필터와 녹색 필터를 통과하는 빛이 없을 것이다.</td><td>① (0, 0, 255)의 색을 액정 디스플레이로 표현할 경우, 적색 필터와 녹색 필터를 통과하는 빛을 볼 수 없을 것이다.</td><td>2026. 4. 28</td></tr>
<tr><td>2호</td><td>141쪽</td><td>3번 문항
1번 해설</td><td>(a, b, c)의 각 숫자는 적색, 녹색, 청색의 강도를 의미하며, 액정 디스플레이에서 각각의 강도는 액정을 통과하는 빛의 세기를 통해 조절된다. (0, 0, 255)의 색은 적색과 녹색은 0으로, 청색은 최대로 표현한 색이다. 따라서 이를 액정 디스플레이로 표현할 때, 적색과 녹색 필터를 통과하는 빛은 없다.</td><td>(a, b, c)의 각 숫자는 적색, 녹색, 청색의 강도를 의미하며, 액정 디스플레이에서 각각의 강도는 액정을 통과하는 빛의 세기를 통해 조절된다. (0, 0, 255)의 색은 적색과 녹색은 0으로, 청색은 최대로 표현한 색이다. 따라서 이를 액정 디스플레이로 표현할 때, 적색과 녹색 필터를 통과하는 빛은 볼 수 없다.</td><td>2026. 4. 28</td></tr>
<tr><td>1호</td><td>197쪽</td><td>2번 문항
3번 해설</td><td>(나)는 대상과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을 활용하지 않았음.</td><td>㉡은 화자와 임의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를 상징함.</td><td>2026. 5. 13</td></tr>
<tr><td>2호</td><td>75쪽</td><td>3번 문항
5번 선지</td><td>⑤ 노직이 최초 획득의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로크나 루소가 자연 상태를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유 재산권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이군.</td><td>⑤ 노직이 최초 획득의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로크나 루소가 자연 상태를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유 재산권의 정당성을 논증하기 위해서이군.</td><td>2026. 6. 15.</td></tr>
<tr><td>2호</td><td>162쪽</td><td>3번 문항
5번 해설</td><td>따라서 노직이 최초 획득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로크나 루소가 자연 상태를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td><td>따라서 노직이 최초 획득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로크나 루소가 자연 상태를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사유 재산권의 정당성에 대해 논증하기 위해서이다.</td><td>2026. 6. 15.</td></tr>
<tr><td>5호</td><td>173쪽</td><td>1번 문항
5번 해설</td><td>⑤ ~~동일한 행동의 반복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동일한 행동의 반복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음.
오답 윗글에서는 인물의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는다.</td><td>⑤ 동일한 행동의 반복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음.
오답 윗글은 ‘술을 따라 마신다’, ‘술을 마시며’에서 정철이 술을 마시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는 정철의 태연한 태도를 부각하는 것일 뿐,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td><td>2026. 7. 20.</td></tr>
<tr><td>6호</td><td>208쪽</td><td>DAY4의
‘PVD 방식’
표</td><td><table><tr><td>〈차잇값 범위표〉를 참조해 삽입 가능한 비트 수 결정 (cf. 16~31 구간: 5개 가능)</td><td>5비트 (00000~11111)</td></tr><tr><td>삽입할 데이터를 10진수로 변환</td><td>$11000_2 \rightarrow 24_{10}$</td></tr><tr><td>변환한 값에 해당 구간의 최솟값을 더해 새로운 차잇값을 생성함.</td><td>24 + 16 = 40</td></tr><tr><td>새로운 차잇값이 되도록 두 픽셀값 조정</td><td>40이 되도록 조정</td></tr></table></td><td><table><tr><td>〈차잇값 범위표〉를 참조해 삽입 가능한 비트 수 결정 (cf. 16~31 구간: 4개 가능)</td><td>4비트 (0000~1111)</td></tr><tr><td>삽입할 데이터를 10진수로 변환</td><td>$1100_2 \rightarrow 12_{10}$</td></tr><tr><td>변환한 값에 해당 구간의 최솟값을 더해 새로운 차잇값을 생성함.</td><td>12 + 16 = 28</td></tr><tr><td>새로운 차잇값이 되도록 두 픽셀값 조정</td><td>28이 되도록 조정</td></tr></table></td><td>2026. 9. 17.</td></tr>
</table>

호	쪽수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최종 수정일
7호	154쪽	3번 문항 4번 해설	한편 (나)의 '자규의 넋'은 화자가 죽어서 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화자가 꿈속에서 임과 일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가 아니다.	한편 (다)의 '자규의 넋'은 화자가 죽어서 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화자가 꿈속에서 임과 일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가 아니다.	2026. 9. 18.

※ 이 외의 교재 오류는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누리집(http://www.imaginecne.com)의 〈Q&A〉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확인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류 없는 교재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